

2024 년도 예산: 앨버타주의 경제적 장점을 유지한다

2024 년 2 월 29 일

앨버타주 정부의 내년도 재정 계획은 대규모 투자가 더 커지도록 하며 경제를 다양화한다.

“2024 년도 예산안은 다양화, 신규 투자 유치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한다.”

네이트 호너 재무 장관(Minister of Finance)

앨버타주는 이미 캐나다 경제에서 그 규모를 능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창출된 모든 일자리의 22% 이상이 인구 비율은 12%에 불과한 앨버타주에서 창출된 것이다. 앨버타주는 또한 주간 소득은 최고이고 세액은 최저이며, 신규 주민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 2024 년도 예산안은 숙련 기능직 종사를 유치하기 위해 \$5,000 의 환급 가능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앨버타가 부른다(Alberta is Calling)’ 유치 보너스를 도입한다. 총 지급액은 \$1 천만이다.

2024 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인프라 재정 지원 및 신설된 지역성장지속가능성보조금(Local Growth and Sustainability Grant)으로 \$7 억 2,400 만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원하며, 이 보조금에는 지역사회의 특별 비상 필요를 위한 자금 \$6 천만이 포함되어 있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계획은 각종 기능직 수습 프로그램의 정원을 3,200 명 늘리는 자금으로 \$1 억을 추가 투자한다.

또한, 기능 학교,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신설 및 개량을 위해 \$3 억 6,100 만이 투입된다.

그리고 유아 및 소아의 부모를 위해 아동 보육 서비스에 \$15 억이 배정되며, 이는 \$2 억 증액된 규모이다.

미디어 문의

Savannah Johannsen

savannah.johannsen@gov.ab.ca

780-686-3521

Press Secretary, 재무부(Treasury Board and Finance)